

# 가톨릭 금빛신문

2022년 4월 17일 주님부활대축일

제 45 호

## 〈가톨릭 금빛신문〉의 거듭남을 축하하며

교구장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미물에 불과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가장 피부에 와 닿았던 것은, 당연하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성당과 학교를 마음대로 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신앙이 전파된 이래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미사가 중단되었고, 성당 문은 굳게 잠겨 졌으며, 학교도 제때 개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며 위안을 받는 신자들의 모습도, 학교 교실의 떠들썩한 모습도,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학생들도 한 동안 볼 수 없게 되면서 심리적으로도 위축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상의 단절이 다른 한편으로는 잊고 있던 본연의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임을 알아라.”(시편 46,11ㄱ)라는 말씀이 저절로 이루어졌습니다. 바쁘게 달리던 세상이 멈추면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중단된 미사 대신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 공동체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가톨릭 금빛신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교구 가정복음화국에서 2017년부터 어르신들을 위해 제작했던 〈가톨릭 금빛신문〉도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면서 중단될 수밖에 없었고, 이런 휴지(休止)의 시간에 변화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정 공동체의 중요성이 드러나면서 어르신들의 복음화만을 위한 신문에서 그 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세대와 가정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가정 신문으로 새롭게 개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따뜻한 곳이면서도 갈등이 많을 수 있는 가정이 먼저 복음화되어야 함을 깊이 인식한 것에서 나온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톨릭 금빛신문〉이 노년에서 갓난아기에 이르는 세대 간의 소통을 이루고,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부여된 사명에 대해 생각하고, 가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명과 생태환경, 가족 문화에 대해서도 나누어 봄으로써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목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성가정(聖家庭)입니다. 예수님, 성모님, 요셉 성인께서 하느님을 중심으로 이루신 가정의 모범에 따라 각 가정도 세상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가정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가정이 〈가톨릭 금빛신문〉을 잘 활용하여 필요한 지식을 얻고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구 가정복음화국에서는 가정의 복음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그 깊이와 넓이를 더할 수 있도록 수고하기 바랍니다. 〈가톨릭 금빛신문〉의 거듭남을 축하합니다.

말씀하신대로  
2분께서는 되살아 나셨다  
(마태 28, 5-6)

노년을 위한 〈가톨릭 금빛신문〉이 가정복음화를 위한 신문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 부활대축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경축하고 우리의 부활을 기뻐하는 부활대축일은 성야(聖夜) 미사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이 날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 성취된 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성야 미사는 가톨릭교회 전례 중에서

가장 장엄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이날 세례성사를 거행하여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건너감의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부활성야 전례는 빛의 예식, 말씀의 전례, 세례 예식과 세례 갱신 예식, 성찬의 전례로 구성됩니다. 빛의 예식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빛’이심을 장엄히 선포하고 부활 찬송을 노래합니다.

이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부활초는 말씀이 선포되는 독서대 가까이에 위치합니다. 이어 말씀의 전례는 천지창조에서부터 시작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하느님의 업적에 대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예식이 거행되거나 혹은 세례 후보자가 없으면 세례 때의 서약을 갱신하고 신앙고백은 생략됩니다. 그리고 성찬례를 거행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부활 시기에는 흰색 제의를 입고 기쁨을 드러냅니다. 부활대축일부터 부활 제2주일까지 8일 동안 부활축제를 성대히 지내는데, 초기 교회 당시 부활 대축일에 세례를 받은 새 영세자들이 한 주간을 자기들의 축제 주간으로 생각, 재생의 기쁨과 교회 공동체 생활과 성사 생활을 배우면서 지냈고 휴업한 데서 유래합니다. **금빛**

##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Maria Magdalena)는 일곱 마귀가 떨어져 나가는 예수님의 치유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까지 십자가 곁을 지켰고, 안식일 다음 날 곧 주간 첫날 일찍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부활하신

스승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요한 20, 11-18 참조)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 소식을 알림으로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막달레나 성녀는 여성의 존엄성과 새로운 복음화 그리고 하느님 자비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특별한 역할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2016년 교황청은 예수님 부활의 첫 목격자인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의 의무 기념일(7월 22일)을 축일로 승격하였습니다. **금빛**

## 가정에서의 신앙 전수



▶ 계산성당 정 비오 형제 부부가 자녀들과 함께 성모당에서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하고 있다.

가정은 신앙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우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주도록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 하느님께서 신앙의 성숙과 발전에 부모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신의 어린 자녀에게 예수님께 또는 성모님께 입맞춤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한 행동에 얼마나 커다란 온유함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에 자녀의 마음은 기도의 자리가 됩니다.” 「사랑의 기쁨」, 287항

## 경주의 유일한 성지 ‘진목정’



경주시 산내면에 위치한 진목정(眞木亭) 성지는 인근 탐골과 상선필에 살던 천주교 신자들이 1801년 신유박해 이후 피난 와서 살게 된 것으로 추측한다.

병인박해(1866년)때 울산 살티에 모여 살던 김해 출신 허인백 야고보, 서울 출신 이양등 베드로, 충청도 출신 김종륜 루카의 가족들이 산내면 소태동 범굴로 피신해 살다가 체포되어 약 석 달간 모진 심문과 고문을 받은 뒤 1868년 9월 14일 동천강 강가 울산 장대에서 군문 효수형으로 순교하였다. 순교자들의 유해는 허인백의 아내 박조예가 울산 장대 옆 동진강 외진 곳에 묻어 두었다가 진목정 신자들의 도움으로 교우촌 뒤편 도매산에 합장하였다.

현재 이곳에는 순교자들이 숨어 살던 범굴과 순교자 현양비, 진목정 공소와 세 분 순교자들을 합장한 묘지가 있으며, 성당 제대 뒤편에는 하늘원(봉안당)이 있다. 2014년 8월16일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때 세 순교자는 복지품에 올랐다.

취재 : 박정자 엘리사벳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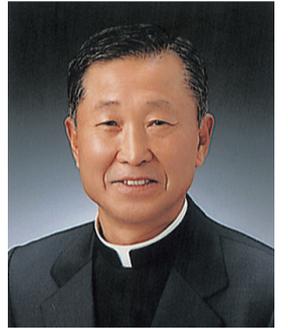
#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원로사제 박성대 세례자요한 신부

먼저 책을 한 권 소개하고 싶습니다. “길에서 만난 행복”(루이스 알렉산드레 솔라누 로씨 지음. 김항섭 번역. 바오로딸)입니다. 이 책 내용 중에서 나를 감동시킨, 아니 나에게 충격을 준 내용이 있습니다. “아직 빛나지 않은 수많은 오로라가 있다.”입니다. ‘오로라’는 주로 북극권이나 남극권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천문현상인데 초고층 대기 중에形形色색의 황홀한 발광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황홀한 발광 현상이 북극이나 남극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인 내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힌두교의 경전에 ‘사람들의 삶 안에 아직 빛나지 않은 수많은 오로라가 있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 사실 앞에서 황홀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충격과 함께 황홀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칠순 중반을 넘어서는 저에게도 아직 빛나지 않은 오로라가 있다니!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수많은 오로라가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인간은 현재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다시 한번 빛나려고 하는 오로라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앞으로 죽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오로라를 빛내면서 신바람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곁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하루는 분명히 기적입니다. 나의 하루는 결코 평범한 하루가 아니고 죽지 못해 사는 그런 미묘하고 지루한 하루가 아닙니다. 기적을 이루며 사는 하루가 바로 나의 오로라를 빛내면서 사는 황홀하고도 신나는 하루, 행복한 하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내 안에 있는 아직 빛나지 않은 수많은 오로라를 빛내면서 사는 기적같은 매일, 행복한 노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오로라를, 이런 기적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마태 5,14-15) 하느님께서 주신 이 ‘빛’을 비추는 삶이 바로 오로라를 빛내는 삶이며 기적의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 비산성당 노년봉사단 ‘실버리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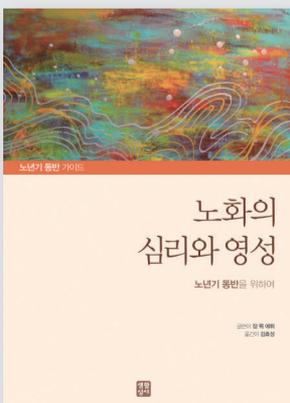
대구 비산성당(주임신부: 허인 베네딕도)에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봉사에 앞장서는 노년봉사단 ‘실버리더’의 헌신적 활동을 소개합니다.

10여 년전부터 6-70대 노년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고령 홀몸노인, 노숙자, 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들에게 식사나 밑반찬을 제공하며 직접 방문하여 말벗이 되어드리는 등 아름다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는 10여 명의 회원들이 각 5명 이상의 어려운 가정을 정기적으로 돌보기도 합니다.

본당 제단체와 ‘실버리더’ 회원들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지원으로 매월 1회 300명 이상의 어르신께 무료식사(짜장면 등) 제공과 밑반찬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실버리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경비를 마련하여 별도의 식사와 반찬 및 김장김치 나눔 등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향후 실버리더 회원들은 음식점, 미용실 등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10개소의 사랑방 만들기를 목표로 주민쉼터를 마련하여 소통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취재: 이춘식 하롤드 기자

### 책 소개



품위있는 노화를 위하여,  
지혜로운 돌봄을 위하여

**‘노화의 심리와 영성’**  
- 노년기 동반을 위하여 -



▲ 구매링크

## 가톨릭 금빛신문

대구 중구 남산로4길112 대건관 1층 가정복음화국  
발행인: 조환길      주간: 박상용

편집: 기획팀(총괄 김사훈)

대표전화. 053-250-3077  
E-mail. dgfamily@dgca.or.kr

Fax. 053-250-3078  
기사제보 및 문의. 053-250-3114

**가정복음화국을  
온라인에서도  
만나보세요!**



하느님의 축복속에 아름다운 가정들! 2017년 4월 30일 창간 \_ 매월 셋째 주일 발행

## “숨” 같은 금빛 신문

박광훈 안드레아 신부(교구 성소 국장)



사람을 살게 하는 것. 나를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 ‘숨’말입니다. 숨은 내가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쉬어지는 것이지요. 그저 가정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함께 하는 사람이 있음으로 저는 비로소 제가

살아 있다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숨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사람은 서로의 숨통을 막지 말고 내가 너에게, 너는 나에게 들숨과 날숨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나는 너를, 너는 나를 들이마시고 내어 쉬며 살아야 합니다. 금빛신문이 바로 우리에게 들숨과 날숨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서로를 들이마시고 내어 쉴 수 있는 친교의 금빛 신문이 되길 기대합니다.

## 새로운 소통의 가족신문

서예빈 노엘라(고1, 만촌1동 성당)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계절, 봄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움이 움트는 생기로운 봄을 즐기고 계신가요? ‘가톨릭 금빛신문’이 가족신문으로 새로 시작을 한다고 하니 무척 기쁘고 기대가 됩니다.

이 아름다운 봄에 탄생한 가톨릭 금빛신문에게 많은 기도로 축복을 드리며, 가족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소통의 장이 된다면 더 맛있는

가톨릭 금빛신문이 될 것입니다.

2022년의 봄을 새로움과 익숙함, 그리고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채우고 그 어느 때보다 성령으로 가득 찬 계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이 시작하는 모든 이들의 축복을 빕니다.

## 당연한 것의 소중함

박현주 플로라(상인 성당)



하느님의 섭리와 사랑의 체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가정을 위한 금빛신문의 재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2년 설 연휴를 보내고 가족과 함께 대구로 오던 길에 나에겐 일어날 것 같지 않던 일인 교통사고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저의 간절함을 들어주셨는지

어머니께서는 간신히 의식을 찾으셨고, 내 옆에 있었던 사랑하는 가족, 남인 데도 가던 길을 멈추고 도와주었던 사람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순간조차도 하느님의 사랑과 보살핌은 언제나 존재했었고 가족과 이웃의 소중함과 사랑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빛’으로 길이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 행복한 소식 많이 알려주세요

이세미 스텔라(초4, 대안 성당)



안녕하세요. 저는 대안 성당 초4 이세미 스텔라입니다.

가톨릭 금빛신문의 재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무지개 후보’ 기자단이 되고 이런 멋진 이름의 신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재발간되어 즐겁고 행복한 소식, 유용한 정보 많이 알려 주세요.

최근 우리 가족은 코로나19 때문에 할머니댁과 외가댁으로 떨어져 지냈습니다. 다시 우리 가족을 만났을 때는 눈물부터 나오고 엄마, 아빠를 꼬옥 안았습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떨어져 있으면서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기억하며 저 이세미 스텔라는 하루하루 기쁘고 감사하게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

## 가족간의 대화 통한 신앙전수

김선옥 막달레나(김천 울곡 성당)



가정·가족을 위한 가톨릭 금빛신문으로 다시 발간됨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가족은 작은 딸이 고등학교에서 세례를 받아 엄마인 나의 냉담을 풀게 했고 아들도 주일학교에서 세례를 받아 주일학교 교사를 하며 신앙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한 신앙전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여남은 삶에 신앙생활에 집중하고 기도드리며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더불어 가족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에 감사드리며 가톨릭 금빛신문이 가족신문으로 무한히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신문

최은주 모니카(죽도 성당)



†찬미예수님!

부활절을 맞이해서 금빛신문이 가정복음화 신문으로 거듭나는 즈음 중·장년층을 대표해서 축하 메시지를 보냅니다.

저는 결혼 후 대구에서 포항으로 오게 되었고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엄마가 된 저에게 신앙은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세례 후 이어진 레지오 활동 속에서 신부님들과 수녀님들 그리고 좋은 형제자매님들의 사랑 속에서 저도 아이들도 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비신자인 남편은 제가 성당에 다녀서 아이들을 잘 키웠다고 고마워 합니다. 아직 성가정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꼭 성가정이 되리라는 믿음을 가져봅니다. 이것이 저희 가정의 복음화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늘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가정복음화 신문이 되길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 청년·청소년의 벗 ‘가톨릭 금빛신문’

문창규 베드로 신부(교구 청년·청소년 국장)



잠 못 들었던 밤 들려주시던,  
옛날 옛적의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의 이야기.  
아픈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해 주는 약손인 엄마 손.  
새벽 일찍 일어나 가족을 위해 손에 쥐시는 오래된 묵주.  
식으면 맛없다며 얼른 챙겨주시는 손맛 가득한 음식.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지 못해도 알아주시는 넉넉한 마음.

이 모든 것에 사랑과 지혜 그리고 축복이 담겨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힘과 위로를 얻으며 살아갑니다.  
가톨릭 금빛신문! 우리 청년·청소년들과도 가까이 있어 주십시오.  
하느님의 사랑과 삶의 지혜가 가득한 가톨릭 금빛신문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 가정복음화를 담당하는 큰 버팀목

조용주 마리아(교구 여성위원장)



어르신들의 생각과 다양한 체험을 소중하게 나누던  
금빛신문이 세대를 뛰어넘는 가정복음화 신문으로  
거듭나게 됨에 축하를 전합니다.  
오늘날에는 1인 가구,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이 더  
많아졌고, 가정폭력과 세대단절, 경제적 이유로 해체  
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꾸준한 신앙생활의 어려움  
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생명과 사랑의 친밀한 공동체’이고, ‘가장 가까운 교회’입니다.  
여성의 역할과 금빛신문의 역할이 다 함께 한다면, 복음의 기쁨을 더 많은  
가정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 합니다. 교구 여성위원회는 금빛신문이  
가정복음화를 담당하는 큰 버팀목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 소외된 가정과의 가교 역할

안병을 피멜리스(교구 운전기사 사도회장)



✝찬미 예수님!  
‘가톨릭 금빛신문’이 가정신문으로 재발간함을 환  
영하고 축하하며, 주님의 축복과 도우심으로 가정의  
성화와 친교에 많은 도움이 되는 매체가 되기를 기원  
합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교회의 근간이 되는 기초 공  
동체로서 매우 중요하며, 가장 우선적으로 돌보아야  
할 공동체입니다. 이에 가톨릭 금빛신문이 현세의 어려운 환경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가정과의 가교 역할로 가정 공동체의 사명 등을 전달하고 이끌어  
주는 매체로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신앙적으로나 세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이를 극복하고 잘  
살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 고통을 이겨내려고 시행착오를 겪었던 아픈 이  
야기 등을 서로 나누며 함께 하고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함께 하는 광장이 되  
기를 소망합니다.

## 따뜻하고 든든한 가정신문

권순남 가타리나 수녀(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대교구 가정복음화국에서 마음의 가정이 되어  
줄 새로운 신문을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그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각자 다른 길을 걷다 다양한 사연으로 만나, 가족과  
친지들의 축복 속에 혼인으로 탄생한 사람들의 보금자  
리가 되어 주었던 귀한 가정들. 그러나 정작 이 시대는  
여러 사연으로 식구끼리 둘러앉아 한술밥을 먹는 일조차도 어려워졌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으로 외로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에게 따뜻한 어머니 손길 같고,  
든든한 아버지의 품 같은 가정신문이 되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어떤 외로운 사람도 가정신문 안에서 가족의 온기를 느끼도록 정을 담  
아 주소서.

## 기다리는 사랑의 신문

강경자 로사리아(교구 미용인회장)



✝찬미 예수님!  
가톨릭 금빛신문이 가정소식지로 재발간됨을 축하  
드립니다.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보금자  
리이며 교육장소라고 생각되는 가정의 중요성은 너  
무나 자명합니다.

교구에서 가정을 위한 특별한 신문을 만드신다니  
무척 반갑습니다. 가정에 필요한 영성적이고 가족끼리 나눌 수 있는 이야기  
들을 많이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문이 발행되는 날이 기다려지는 신  
문이 되고, 더 성장하는 사랑의 신문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 더 풍성하고 유익한 금빛 신앙지

성부언 가브리엘(전 선교게이트볼 동호회장)



✝찬미 예수님!  
가톨릭 금빛신문의 새로운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  
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잠시 중단 되었던 금빛신문이 재발  
간되어 기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욱 풍성하고 유익  
한 금빛 신앙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를  
요망해 봅니다.

1. 대구주보와 같이 시사와 신앙적인 만화 수록
  2. 노인에게 많은 질병에 대하여 전문의와 1문 1답식 건강상담 코너
- 그 동안의 가톨릭 금빛신문 애독자로서 이 달의 시를 비롯하여 퀴즈·퍼즐  
봉사 활동 등 신앙생활의 길잡이가 되는 다양한 내용의 알찬 소식지를 발간  
해 주신 박상용 가정복음화국장 신부님을 비롯한 편집 위원님께 뜨거운 감사  
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결혼 안하길 잘했다!’

김성래 하상바로 신부(대구ME 지도신부)



가톨릭 금빛신문이 가정신문으로 부활함을 축하합니다. 저는 대구ME 지도신부 김성래 하상바로입니다. 가정신문의 한 부분을 ‘부부 대화’로 만들어 대구ME 발표부부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신부로서 우리 대구ME 발표부부들을 소개하고 싶어 첫 글을 씁니다.

대구ME 발표부부는 스물세 쌍입니다. 혼인 33년 차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부부부터 자녀가 아직 초등학교에도 입학하지 않은 부부들까지 다양합니다. 각자 본당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길가다가 만날 수 있는 부부들입니다. 저는 이들과 함께 십 년 넘게 ME 발표신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 ‘ME 주말’ 프로그램에 참석했을 때 솔직히 ‘결혼 안 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대 부부의 삶이 참으로 힘들고, 한 사람에게 평생을 몸과 마음을 바쳐 충실히 헌신한다는 것이 도무지 가능한 일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

니다.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사제로서 가장 잘한 일 가운데 하나가 ME 발표신부로 활동한 것이며, ‘ME 발표부부들과 결혼하길 참 잘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혼인생활은 쉽지 않지만 매순간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이들은 저의 소중한 배우자이고, 저는 모든 신자들을 포함해서 이들과 결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이며 부부 사이는 교회의 기초입니다. 건강한 부부 관계는 활기찬 청소년의 집이며, 부부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기로 매일 결심하지 않는다면 가정이나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저는 대구ME 발표부부들을 통해 헌신과 사랑, 무엇보다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이들 역시 서로 싸우고 미워하기도 하지만, 다시 사랑하기로 결심하며 먼저 다가가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이는 이들입니다. 부부간의 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깨닫고 매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랑스런 부부들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로 세상 모든 부부가 서로를 더 오래 쳐다보고 깊은 사랑을 깨달아 친밀히 대화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이들의 이야기에 함께 귀 기울여 볼까요! 

〈5월호 부터 ME부부들의 소통이야기가 1년간 연재됩니다.〉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몸이 된다.”(창세 2,24)

부부의 시작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버림이 아니라 “떠남”에서 시작된다는 창세기 저자의 말씀을 잘 기억합니다.

이제 부부는 부모로부터 정서적, 물리적, 그리고 물질적인 의존에서 독립함을 이야기합니다.

예비부부, 그리고 부부 여러분 혼인여정은 “떠남”에서 시작됩니다.

## 질문 셋, 대답 셋

†신랑○○○와 신부○○○는 어떠한 강박도 없이 완전히 자유로운 마음으로 혼인하려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두분은 혼인생활을 하면서 평생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까?

◎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다.

†두분은 하느님께서 주실 자녀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기르겠습니까?

◎ 그렇게 기르겠습니다.

부부 여러분, 세 가지 질문이 생각나시나요? 가족과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혹은 기쁨과 설렘으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하셨던 때가 기억나시나요? 어떤 분은 너무나 또렷이, 어떤 분은 머나먼 어느날로 추억하고 계실 듯 합니다.

혼인예식에서 우리가 대답했던 이 세 질문은 창조주 하느님의 계획 속에서 자녀의 출산과 교육을 지향하며, 부부의 행복이 혼인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이 잘 녹아있습니다.

우리는 그날 “예”라고 세 번 대답했습니다. 오늘 이 질문 셋을 받으신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인지요? 혹시 대답 중 하나가 “아니오”라면 그날의 다짐과 사랑을 떠올리는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질문 셋에 대한 대답 셋이 “예”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그날처럼 지금도 여러분은 참!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 저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

이영주 베로니카(평리성당)

저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  
저희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당신 두 팔로 저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소서.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저희 부부가 화합하여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과 함께  
이 세상에서 성 가정을 이루신 예수님을 본받아  
당신과 함께 하는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소서.

저희 자녀들에게 필요한 은총을 허락하시고  
이웃을 위한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어  
당신 찬미영광 받으소서.

저희 가정이 어려움과 고통을 만나게 되면  
당신께서 걸어가신 길을 기억하게 하시어  
저희가 기도 안에서  
당신께서 주시는 위로와 용기로  
당신의 참된 길을 따라 걷게 하소서.

저희 가정에 당신의 자애와 자비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당신께 의탁하는 저희 가정을 기억해주소서.  
아멘.



# 부모와 자녀 관계 (1)

## - 소통으로 가는 첫걸음 -

한혜숙 에밀리아나(대상관계심리상담사)

부모와 자녀의 소통은 부모가 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시간이 흘러도 소통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고 마음처럼 되지 않기도 한다.

“별써 말을 안 들어요.”  
 부모교육 현장에서 만나는 부모들의 목소리다.  
 “내가 하는 말은 다 잔소리라고 하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답답해서 대화를 좀 하려고 하면 싸움으로 끝나요.”  
 그렇다면 자녀들은 어떨까?  
 “부모님이랑은 말이 안 통해요.”  
 “나만 보면 잔소리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필자는 이러한 호소에서 부모와 자녀가 누구보다 서로 소통을 잘하고 싶은 욕구(need)가 있다고 느낀다. 많은 부모가 자녀의 성장을 돕기 위해, 때로는 내가 답답해서, 또는 다른 이유로 자녀와 소통을 원한다. 부모교육을 통해 칭찬 기술이나 자녀와의 대화법과 같은 기술을 배워 변화의 노력을 한다. 그러나 노력이 지속적이기 어렵고 부모가 자녀의 반응에 실망하기도 하면서 소통에 미흡함을 느끼게 된다.

소통이란 대상과의 진정성있는 만남에서 시작한다. 즉, 부모가 자녀를 지금 내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경험할 때 소통이 잘 된다는 의미다. 부모와 자녀가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과 느낌을 나누며 서로를 경험할 때 진정성 있는 만남이 이루어지고 소통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부모가 자녀를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다면 소통이

잘 되기가 어렵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느끼고 있는 감정 상태가 진정성 있는 만남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자녀와 친밀감을 느끼며 잘 지내자.’를 강조하고 싶다. 부모와 자녀가 친밀한 관계일 때 가까움, 따뜻함, 신뢰, 관심, 이해, 존경, 도움, 연속감과 같은 느낌이 잘 유지된다. 정서적 유대와 애정적 결속이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자녀와 친밀감이 있는 부모의 경우, 자녀와 정서적 거리가 가까워서 느낌을 공유하기 쉽다. 자녀가 보내는 신호를 보다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고 자녀가 원하는 것, 싫어하는 것, 불편해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다. 부모와 친밀한 관계인 자녀의 경우에는 안정 애착 상태에 있게 되어 부모의 시선을 걱정과 불안이 아닌 믿음을 주는 시선으로 느낀다. 또한, 부모의 말을 잔소리로 듣기보다 자신을 이롭게 하는 말로 듣는 것이 가능하고 부모의 보살핌을 간섭이 아닌 사랑으로 받을 수 있다.



자녀는 매 순간 자신을 성장시키려는 자발적 욕구와 몸짓을 강렬하게 표현한다. 그리고 그런 자기를 특별히 부모가 인정하고 지지, 공감해 주길 기대한다. 자녀는 부모와 관계를 통해 부모가 비춰주는 내용으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가고 있다. 이러한 자녀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 소통에 대하여 좀 더 나눌 수 있는 다음 기회를 기대해 본다.

〈한혜숙 에밀리아나 선생님의 부모와 자녀 관계 칼럼은 1년간 연재됩니다.〉

# 사랑의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유현실 안젤라(가창 성당)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헤이해지는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족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모태 신앙인 남편은 몇 해 전부터 1년에 손꼽힐 정도로 미사 드리는 횟수가 줄었고, 코로나 시작과 함께 남편의 신앙생활도 서서히 멀어지게 된 것 같다. 직업상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도 하지만 간절함이 없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늘 아쉬웠다. 그러나 남편은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나보다 늘 먼저 그분들을 도와주었다. 남편이 미사도 참례하지 않고, 본당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하지 않아 불편했던 나의 마음이 위안이 되고 오히려 부끄러워졌다. 사랑의 실천을 누구보다 잘하고 있는 그런 남편을 적극 응원한다.

딸 마리아는 6년째 본당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활동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다. 코로나로 본당 주일학교 미사가 없어진 2년 동안 주일학교 밴드를 통해 교구 청년·청소년국 소식을 전하고, 가정복음화국 ‘조부모와 노인의 날’ 실천 운동에 참여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과 소통하고 있다.

아들 하상바오로는 주일학교도 열심히 참여하고 미사에 복사 서기를 좋아했는데 고2 때부터 냉담이 시작되었다. 종교의 자유를 운운하며, “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자마자 가톨릭 신자가 됐는지? 어머니는 왜 성당 일에 그리 맹목적인지?”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였다. 그때가 아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다. 힘든 시기에 ‘성모 마리아 어머니학교’를 통해 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었다. 나와는 너무나 다른 아들을 이해하지 못한 나의 부족함도 알았다. 아들이 멈춰달라는 신호를 보내면 멈출 수 있는 힘도 그때부터 생긴 것 같다.

부족하고 서툰 가족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기까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딪히고 상처받으며 함께 조금씩 노력하고 성장해 가고 있다.

나와 내 가족이 소중하듯 친구와 이웃도 소중히 여기며, 사랑을 다시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느님께 기도하며, 제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찬미 받으소서 (LAUDATO SI)”

## - 교회의 생태 영성 가르침 -



### ▶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찬미 받으소서”란?

교황문헌들은 입법과 행정행위, 사목적 차원, 형식에 따라 다양하게 불립니다. 그중 ‘회칙’은 전세계 주교들과 신자들을 대상으로 교황이 직접 권고하는 문서를 말하며, 사목적 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위치를 가지는 문헌입니다.

2015년 6월 발표된 “찬미 받으소서”는 교황 문헌 중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회칙’을 통해 생태적 가르침을 선포함으로써 공동의 집 지구를 돌보는 일이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교회의 공적 가르침이란 점을 명확히 합니다.

“저의 주님, 찬미 받으소서. 누이며 어머니인 대지로 찬미 받으소서. 저희를 돌보며 지켜 주는 대지는 온갖 과일과 색깔의 꽃과 풀들을 자라게 하나이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프란치스코 성인은 하나님의 피조물과 가난한 이들과 버림받은 이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셨고,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소박하게 사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러한 모습이 생태적 삶의 가장 훌륭한 모범이라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찬미 받으소서” 회칙의 제목도 프란치스코 성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가인 ‘태양의 찬가’ 후렴구 “저의 주님, 찬미 받으소서”에서 따오게 하셨습니다.

출처: “공동의 집, 지구” - 교황회칙 “찬미 받으소서”로 살기!!!

### ▶ “찬미 받으소서” 읽기

〈1항〉 찬미 받으소서(LAUDATO SI). 프란치스코 성인은 “저의 주님, 찬미 받으소서.”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 아름다운 찬가에서 우리의 공동의 집이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는 누이며 두 팔 벌려 우리를 품어 주는 아름다운 어머니와 같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 ▶ 실천하기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회칙 “찬미 받으소서”에서 신앙인들의 생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십니다. QR코드로 영상 시청 후 개인, 가족 혹은 공동체가 다 함께 “우리의 지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금빛**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황 프란치스코 회칙 - “찬미 받으소서”



## 가정미션 : 전쟁 없는 세계 평화를 위해 하루 중 주모경 한 번 바칩시다.

# 生

김호균 마르꼬 신부(노동 사목부장)



우리들이 한자에 의미를 붙인 ‘날’ 것에 대한 생각은 웬지 투박한 느낌입니다. 그러나 의미를 분화시켜 받아들이는 ‘살아 있다’는 것은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집착이 작동할 만큼 연장시키고 싶은 나름의 본능도 숨어있습니다. 아마도 살아 있는 모든 생명들의 욕구일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 있다는 현실은 감사함이라는 모두의 노래입니다. 우리들이 ‘죽지 못해 살고 있다’는 말도 사경을 헤메는 모든 생명체들 앞에서는 쉽게 건낼 수 없는 말일 것입니다.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씀은 세상에 생을 부여했다는 말입니다. 無에서 有에로의 출발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짝을 띄우고, 어떤 것들은 뛰어다니고, 어떤 것들은 날아다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느님은 인간에게 직접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창세 2, 7) 그것은 인간에게는 특권인 동시에 무한한 책임을 부여하신 이유입니다.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살아

가야 하는가’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의 <공동의 집>인 지구는 인간만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독점할 수 없고, 독점해도 안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의 것이고 인간은 그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인간은 생과 死의 갈림길에 유독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삶에 대한 연정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 이웃들이 겪고 있는 생과 死의 문제 앞에는 둔감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생과 死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올라와야 할 짝이 보이지 않거나 비틀어지고, 뛰어 야할 것들이 절독거리며, 날아야 할 것들이 날개를 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이 주신 생은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맡기신 하느님께 대한 인간의 도리입니다.

“들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묵시 3, 20)

## 이렇게 생각합니다!

### - 세대별 의견 듣기 -

### “이상적인 자녀수는 몇 명이라고 생각하나요?”

가톨릭 금빛신문은 각 세대간의 생각을 알아보는 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세대갈등이 큰 화두인 이 시대, 여러분들의 참여는 세대간의 소통과 화합에 작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4월 설문조사 결과는 5월 신문에 게재됩니다.

**설문기간** 2022. 4. 17.(주일) ~ 4. 27.(수)

**응답방법** ① QR코드 접속 후 제출

② 아래 작성 → 사진촬영 → 카카오톡채널 ‘가정복음화국’ 발송



▲ 설문지 링크

### 4월 세대별 의견 듣기 설문

1. 성별 및 연령대 : 남 / 여 (            세 )
2. 이상적인 자녀수는 몇 명이라고 생각 하나요? (            명 )

## 제10차 세대가정대회 주제가 합창·중창대회(비대면)

### - 제10차 세계가정대회(6.22~26 로마) 기념 -

### 공식 주제가 ‘사랑의 주님’ (번안곡)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교우들이 주제가 사랑의 주님을 듣고 노래하며 가정의 의미와 사랑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과 QR코드 스캔으로 확인하십시오.

**신청기간** 2022. 6. 1.(수) ~ 6. 10.(금)

**대 상** 가족 또는 단체

**참 가 곡** 세계 가정대회 주제가 ‘사랑의 주님’(번안곡)

**시 상** ● 대 상 : 강복장+100만원(1팀)

● 금 상 : 강복장+50만원(2팀)

● 은 상 : 강복장+30만원(4팀)

● 참가상 : 기프티콘(치킨)



주제가 듣기



더 자세한 참가방법